



SI(시스템통합)

2011 산업위험 평가

Industry Rating History

2009	2010	2011
불리	불리	불리

Analyst Contacts

▷ 선임연구원 박성준
02-2014-6223
sj.park@nicerating.com

▷ 연구위원 염성필
02-2014-6226
spyeom@nicerating.com

Summary

- 한신정평가(주)는 SI 산업의 산업위험을 “**불리한(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회전반적인 컴퓨팅 환경의 확산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 양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시장수요의 높은 변동성, 낮은 진입장벽과 미약한 서비스 차별화로 인한 높은 경쟁강도, 전후방부문에 대한 낮은 교섭력, 빠른 기술적 환경 변화 등이 SI 산업 소속기업의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 다만 대내시장의 경우 그룹계열 물량 등을 토대로 산업위험 부담수준이 대폭 완화되는 양상이다.
- 최근 국내 SI 산업은 크게 3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상·하위 업체간 양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는 SI 관련 기업이 수천여 개에 달하나, 매출의 절반 가량이 그룹계열 소속 대형 SI 기업군(2009년 실적기준 상위 22개사 합산매출기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과거 대부분의 SI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레퍼런스 구축 및 경험 축적을 위하여 저가입찰에 응했으나, 최근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출혈경쟁의 폐해를 막기위한 시장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업체간 M&A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대형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SI 기업들은 IT 컨버전스를 통한 신사업 기회 창출과 외형확대를 통한 시장내 입지강화를 위해 동업종 혹은 타업종 간 M&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 SI 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근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수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 2011년 SI 시장은 2010년 보다 소폭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국내 시장의 높은 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급감했던 IT 투자의 회복에 따른 지저효과에 주로 기인하며, 2010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지며 주요 기업들의 2011년 IT 투자전망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부문은 시스템 구축 및 SW 개발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공공 SOC 부문과 제조기업부문의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모바일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모바일 보안’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긍정적 요인

- ✓ 컴퓨팅 환경의 확산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 추세

▶ 부정적 요인

- ✓ 경기변동에 따른 시장수요의 높은 변동성
- ✓ 낮은 진입장벽과 미약한 서비스 차별화로 인한 높은 경쟁강도
- ✓ 전후방부문에 대한 낮은 교섭력
- ✓ 빠른 기술적 환경 변화

(*) 단,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소속 SI기업의 경우 계열내부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토대로 상기 부정적 요인의 상당 부분을 회피 또는 축소 가능함

1) 한신정평가(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신정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한신정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무(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2) 한신정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 및 보고서는 미래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신정평가(주)의 신용등급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사의 신용성위험, 내부평가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한신정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보유를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해 각자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보고서의 모든 정보는 한신정평가(주)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되어 분석, 인용하고 있으나,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보의 오류 및 시기, 허위 등은 신용등급 및 보고서의 적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신정평가(주)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신정평가(주)는 보고서의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신정평가(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한 보고서상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한신정평가(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 산업위험 분석

1. SI 산업의 범위 및 개요

SI(System Integration,시스템 통합·구축)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협의의 SI), 업무분석에 의해 수립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각종 유·무형의 시스템 자원(HW/SW/Network)을 개발 또는 조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보다 넓은 의미의 SI(=광의의 SI)는 시스템 통합·구축(협의의 SI)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이전 단계인 IT컨설팅 및 IT솔루션 개발과 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인 시스템 운영관리(SM, System Management), IT아웃소싱(BPO1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포함), IT융합 서비스 및 IT교육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산업위험 Rating에서 언급되는 ‘SI산업’의 범위는 단순히 시스템 통합·구축(협의의 SI)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 IT컨설팅, IT솔루션 개발, SM(IT아웃소싱 포함), IT교육 등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SI’, 즉 ‘IT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의미한다.

[표 1] IT 서비스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체적 업무내용
컨설팅	IT 컨설팅	ISP(정보화전략수립) 솔루션 컨설팅 네트워크·설비 컨설팅 보안·정보보호 컨설팅	장단기 정보화 계획 수립 기업 솔루션 도입 운용 자문 네트워크, 기기, 설비 운용 자문 최적 보안 운용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	전략 컨설팅 조직진단 혁신	비전, 전략 수립 조직, 인사 진단 및 자문 성과평가, 혁신,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통합	시스템 기획	IT 프로젝트 계획 수립	프로젝트기획, 일정, 기술기획
	SW 개발	분석·설계 SW 개발 프로그래밍	업무분석, 프로그램 설계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딩 및 개발
	DB 구축	DB 개발·구축	DB 개발 및 연동
	네트워크·설비구축	하드웨어 선정 네트워크 설계 운영체제 구축	최적 HW 선정 네트워크 설계 구축 OS 표준화 및 구축
	시스템통합	패키지 통합 하드웨어 통합 응용 SW·네트워크 통합 테스트	이종간 패키지 통합 이종간 하드웨어 통합 이종간 네트워크 통합 개발후 실험 및 테스트
	유지보수	시스템 개선 및 보수	운영 유지, 개선, 보수
아웃소싱	ITO	IT 인프라 운영	데이터센터, HW, 네트워크 운영
	BPO	IT 기반 업무운영	콜센터 운영 등
	APO	SM	시스템 위탁운영

¹ 아웃소싱 대상을 IT인프라 및 Application과 같은 IT부문 위주에서 회사의 주요 Process부문으로 확장하여, 기존 고객에게 Payroll, HR(Human Resource)서비스와 같은 업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토탈 아웃소싱 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체적 업무내용
IT 융합 서비스	IT 컨버전스	IT 융합서비스	기존사업을 IT 를 통한 가치제고
	IT 기반 신사업	신 산업 창출 서비스	IT 융합을 통한 신 서비스 창출
교육 · 훈련	IT 교육	교육 훈련	IT 교육 서비스

자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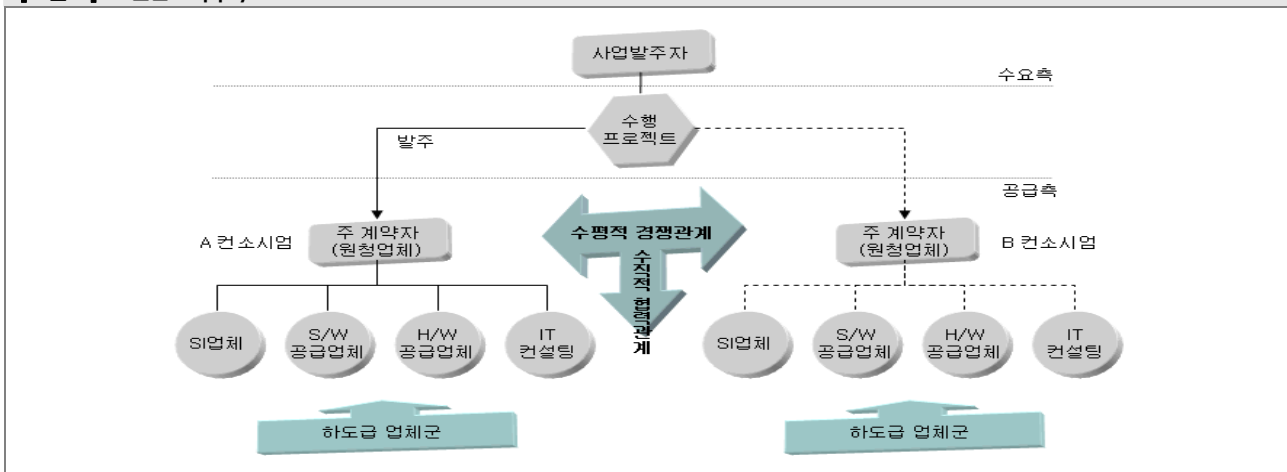
시장구조

SI시장은 사업 참여업체간 “수평적 경쟁관계와 수직적 협력관계가 공존하는 시장 구조” 를 보이고 있다.

SI서비스의 업무프로세스는 ‘컨설팅’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시스템 통합 및 구축’ → ‘운영 및 사후관리’ 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하위서비스들이 결합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프로젝트마다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SI서비스 전(全) 업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IT서비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개 전문 SW업체나 컨설팅회사, 하드웨어 벤더, 소프트웨어 벤더, 용역하도급 업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업무프로세스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SI기업간의 수평적 경쟁관계와 더불어 각 프로젝트 수행 시 원청업체(→1차 수주기업)와 하청업체(→2~3차 수주기업)들간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1] SI 산업 Supply Chain



시장규모

관련기관별로 SI시장규모에 대해 다소간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나, 정보통신산업 통계치를 주관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발간하는 2010년 9월 정보통신산업월보에 의하면 생산액(=매출액)기준 2009년 SI(IT서비스) 시장규모는 22.1조 원으로 파악된다.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 통계치에 따르면, ‘컴퓨터관련 서비스 산업²⁾’의 2009년 잠정시장규모는 생산액(=매출액) 기준 22조 1,350억 원 수준³⁾이다(2008년 확정치 22조 7,650억 원 대비 2.7% 감소). 조사대상기간(2009.1.1~2009.12.31)과 조사실시기간(2010년 6월~11월)에 시간적 공백이 있고 자료취합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09년 시장 확정치는 잠정치와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 시장 규모는 현재 2010년 9월까지의 잠정치는 15조 3,727억 원으로 2009년 9월까지의 잠정치인 15조 7,611억 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2개 수치 모두 잠정치인 관계로 향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조사기관등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성장률은 4~4.5% 정도 성장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2. 주요 산업 위험 요소 분석

SI산업의 주요 위험요소는 높은 경쟁강도 및 낮은 전후방 교섭력 수준, 비교적 높은 경기민감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대내시장의 경우 그룹계열물량 등을 토대로 산업위험 부담수준이 대외시장 대비 대폭 완화되는 양상이다.

시장의 양분화 구조

SI시장은 그룹⁴⁾계열사간 거래여부에 따라,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 이하 ‘대내시장’)과 그룹 외 시장(Non-captive Market, 이하 ‘대외시장’)으로 크게 양분” 된다. 양 시장 내 사업환경은 전혀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며,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내시장 VS 대외시장간 차이요약

구분	대내시장(Captive)	대외시장(Non-captive)
1. 기존기업의 경쟁강도	낮음	높음
관계특화성 (Relationship Specificity)	높음	낮음 (대내시장 대비)
전환비용 & Lock-in 효과	높음	낮음 (대내시장 대비)
2. 잠재적 진입예상기업의 위협	낮음	높음
초기진입장벽	높음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 필요)	낮음 (설립시 신고제)
3. 對 구매자 교섭력	높음 (대외시장 대비)	낮음
4. 對 공급자 교섭력	비교적 높음 (거래규모의 우위에 기인)	낮음
5. 주된 기업형태	그룹계열 대형SI업체	非 그룹계열 중소SI업체

주: 당사(NICE) 정리 작성

²⁾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면 컴퓨터관련 서비스’부문이 이른바 ‘광의의 SI’ 범위와 거의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업계의 ‘IT서비스’란 용어와 동일시 됨

³⁾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에서 패키지소프트웨어 생산(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⁴⁾ ‘기업집단’이라는 단어가 보다 공식적인 용어이나, 사용빈도 측면에서 ‘그룹’이라는 단어가 좀더 통상적이므로 본 고에서는 ‘그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경쟁강도

SI산업 전반적으로는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시장 내 절대적인 경쟁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완전경쟁에 가까운 대외시장에 비해 그룹계열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대내시장에서의 경쟁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SI산업은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여 사실상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1996년 7월 SI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부터 신고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수는 8,926개에 달하며(대기업 160개, 중소기업 8,766개), 그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 수는 3,221개에 달한다(대기업 69개, 중소기업 3,152개). 이는 허가제(또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하여 설립 시 제도적 진입장벽이 전무하며, 업종특성상 대규모 초기 시설투자가 불필요하여 자본적 진입장벽 또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내시장과 대외시장으로 양분된 시장구조로 인하여 각 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강도 수준은 판이한 차이를 나타낸다.

대내시장은 그룹계열 SI 업체에 의해 대부분 독점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사실상 경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관계특화성에 기인하는 기술적 또는 시스템 운용상의 비교우위 존재와 ②기존 서비스제공업체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우위에 기인한 높은 전환비용(Switch cost)과 Lock-in효과의 존재 ③국내정서상 존재하는 정보보호 거버넌스(Governance)중시 성향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대외시장은 경쟁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내시장과 달리 관계특화성, Lock-in 효과 등과 같은 진입장벽 강화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IT시스템 내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이 대부분 범용화 됨에 따라 수요자가 느끼는 업체별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 시장간 존재하는 근원적 경쟁강도의 차이는 각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전방교섭력 수준, 수익성, 현금흐름 안정성 수준 등에 일차적 차이를 유발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무구조 및 재무안정성의 차별화로 귀결된다. 결국, 대내시장 물량의 충분한 확보는 곧 안정적인 수익기반의 보유와 대외시장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장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망을 확보하였다는 관점에서 해당SI기업의 신용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후방 교섭력

Supply Chain상 열위한 입지와 더불어 수요처가 느끼는 서비스차별화의 미흡으로 인해 전방교섭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스템요소자원을 대형 글로벌벤더의 외산 제품에 의존함에 따라 후방교섭력도 약한 수준이다.

대외시장 내 SI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공공부문과 대형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SI서비스의 수요 증대로 많은 SI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나, 일반 중소 SI업체의 대부분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SI업체에 대한 교체비용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기술력보다 가격에 좌우되는 SI업체 선정 기준, 공공부문의 최저가입찰제 관행 등이 SI 산업 전반에서 IT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대 구매자 교섭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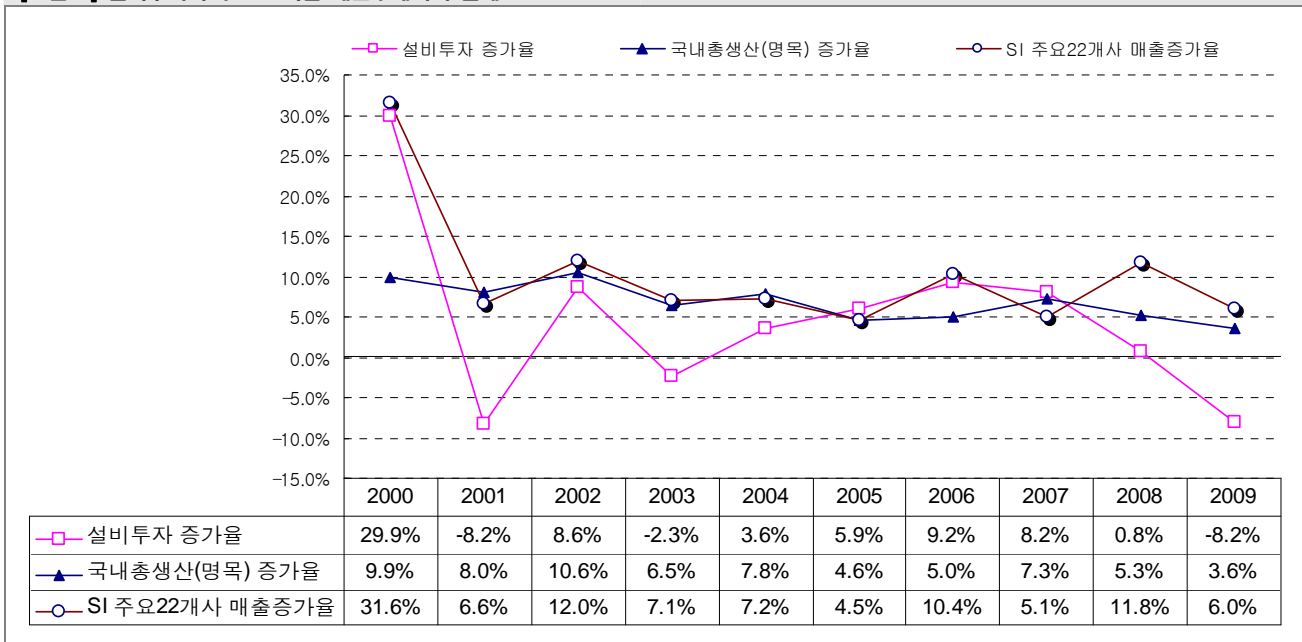
한편 국내 SI업체에서 사용하는 IT 제품(H/W, S/W 등 시스템요소자원)의 대부분이 대형 글로벌벤더의 외산 제품으로, 특정업체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취약한 전후방 교섭력 수준은 대다수 중소 SI업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운전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기민감도

SI산업은 경기민감도가 비교적 높은 산업이다. 이는 기업들의 전산관련 투자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SI기업들의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선행적인 성격이 강하며,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 같은 선·후행적인 성격보다 동행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정보화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경기침체 시 투자삭감 우선순위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보화 투자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변동에의 민감성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2] 설비투자자 주요 SI기업 매출추세와의 관계



자료: 통계청, 주요 SI기업 22개사 각 사 공시자료

주: 주요 SI기업 22개사는 2009년 매출액 기준 상위 22개사를 선정하여 적용함.

II. 산업의 재무적 특성

높은 인건비 비중, 낮은 개발비 비중

SI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은 낮은 반면, 인건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SI업체의 평가 시 풍부한 고급인력의 확보는 핵심경쟁력의 필수조건으로 평가되며, 또한 보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여부는 경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간주된다.

한편, 국내 SI업체들의 총자산 대비 개발비 비중을 보면, 당기 비용인식 분(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과 자산대체 분(개발비 증가분)을 모두 포함한 R&D관련 총 지출 규모가 매출액대비 2%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이 핵심S/W나 솔루션(H/W포함)을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유명 글로벌업체의 제품에 의존하며 하도급 위주의 영업구조를 견지하기 때문으로, 이는 국내 SI업체의 저조한 수익구조의 한 원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SI업체들도 독자적인 Killer S/W 및 솔루션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시장의 낮은 채산성 - 점차 개선되는 추세

그룹계열사간 존재하는 관계특화성 등으로 인해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향유하는 대내시장과는 달리, 대외시장의 경우 치열한 경쟁환경 등으로 인해 저조한 채산성을 나타낸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급성장하던 SI시장이 2000년 이후 IT경기와 함께 성장세 둔화 양상을 지속함에 따라(상위22사의 매출액 기준 평균성장률 1997~2000년까지 약 21.4%, 이후 2000~2009년 약 10.0%), 2003년도까지는 시장선도업체의 경우에도 공공부문 등 대외시장에서 영업이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다만, 상위 SI업체들을 필두로 대외시장 내 수익성 위주의 사업전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저수익 프로젝트 기피현상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며, Big 3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영업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 수익성 지표

(단위: 십억 원, %)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매출액	5,727	6,425	6,853	7,237	7,565	8,350	7,565	8,350	8,774	9,810	10,400
매출액영업이익률	4.0	1.6	3.3	4.7	6.8	7.4	6.8	7.4	7.1	6.6	7.6
매출액순이익률	1.0	-1.3	2.7	4.6	7.7	8.7	7.7	8.7	8.1	6.7	6.1
EBITDA/매출액	7.6	4.6	6.0	7.2	10.2	10.0	10.2	10.0	9.6	9.2	10.1

주: 2009년 매출액 기준 상위 22개사 합산평균 수치

상/하위업체간 차별적 현금 흐름 양상

풍부한 그룹계열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권 업체들의 경우 손익활동 현금창출액이 매출확대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부담을 상회하고 영업관련 경상적인 투자부담이 크지 않아,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자금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대외시장 및 하도급 물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다수 중소형 SI업체의 경우, 치열한 경쟁환경에 기인하는 저조한 수익구조로 자체 자금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상위3사(삼성SDS, LG CNS, SK C&C)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이며, 2009년 실적 기준 상위 3사의 EBITDA, 영업CF, 잉여CF가 주요 22개사 합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8%, 67%, 74%에 달한다.

한편, 공공기관 등의 발주물량이 연내 예산집행을 위해 주로 하반기(특히 4사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운전자금 흐름에 다소 계절성이 존재한다. 관계사간 거래를 통해 원활한 운전자금 운용이 가능한 그룹계열 SI업체의 경우, 이러한 운전자금의 계절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대부분 회피 가능한 반면, 계열기반이 미미한 중소SI업체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됨에 따라, 평가 시 운전자금 흐름의 계절성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4] 현금흐름 지표

(단위: 억 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손익 CF	3,094	4,047	3,661	2,569	4,184	5,188	7,109	7,147	7,144	8,254	8,844
운전자금	55	-1,087	236	-850	-1,093	-1,904	-719	780	205	-2,824	-501
영업 CF	3,444	3,322	3,605	1,391	3,287	3,180	6,908	9,209	6,908	9,209	6,659
영업투자	-2,836	-3,064	-3,468	-2,327	-2,200	-2,267	-3,322	-3,046	-4,225	-3,853	-3,093
FCF	1,025	620	845	458	1,284	1,104	4,105	5,659	3,597	630	2,960
EBITDA	4,107	4,918	4,326	2,936	4,139	5,181	7,689	8,331	8,399	9,043	10,480

주: 1) 2009년 매출액 기준 상위 22개사 단순합산 수치

2) (+)는 현금유입, (-)는 현금유출

3) FCF: Free Cash Flow

산업간 재무지표 비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최대	최소
부채비율(%)	SI	68.1	82.3	100.7	86.1	95.1	84.1	75.3	84.8	97.7	84.3	85.8	100.7	68.1
	전체	223.3	205.1	173.1	157.2	144.5	135.6	127.5	121.3	142.5	132.6	156.3	223.3	121.3
총차입금/EBITDA (배)	SI	1.3	2.3	2.8	1.7	1.5	2.0	1.7	2.1	2.9	2.3	2.1	2.9	1.3
	전체	4.1	3.9	3.5	3.3	2.6	2.9	3.2	3.2	3.7	3.8	3.4	4.1	2.6
차입금의존도(%)	SI	14.4	16.6	18.9	16.6	17.8	20.2	15.3	17.7	23.4	22.2	18.3	23.4	14.4
	전체	37.9	36.4	34.0	32.5	29.8	28.8	28.1	28.3	30.7	30.3	31.7	37.9	28.1
총자산회전율(회)	SI	1.0	1.0	1.0	1.0	0.9	0.8	0.8	0.8	0.8	0.7	0.9	1.0	0.7
	전체	0.9	0.9	0.9	0.9	1.0	1.0	0.9	0.9	0.9	0.8	0.9	1.0	0.8
운전자금회전율(회)	SI	7.6	7.7	6.9	6.5	7.4	7.3	7.0	7.0	8.5	8.2	7.4	8.5	6.5
	전체	8.6	9.5	8.9	8.1	8.1	7.5	6.6	6.0	6.2	6.0	7.5	9.5	6.0
매출액영업이익률(%)	SI	6.8	2.9	1.2	4.2	7.4	7.3	6.9	6.0	5.8	9.6	5.8	9.6	1.2
	전체	5.7	5.2	5.9	6.5	7.5	6.4	5.6	6.1	5.7	5.8	6.0	7.5	5.2
매출액세전순이익률(%)	SI	7.1	-1.3	-2.3	2.1	6.5	9.1	7.3	5.7	0.4	7.5	4.2	9.1	-2.3
	전체	-0.3	1.2	5.6	4.9	7.6	6.4	5.7	6.3	2.9	5.0	4.5	7.6	-0.3
ROIC(%)	SI	11.4	5.5	2.2	6.1	10.1	11.0	10.5	9.2	9.6	14.9	9.0	14.9	2.2
	전체	7.2	5.7	6.8	7.4	9.6	8.2	7.1	7.5	7.2	7.1	7.4	9.6	5.7
EBITDA/매출액(%)	SI	10.5	7.3	6.4	9.8	12.8	13.0	11.3	10.4	10.1	13.8	10.5	13.8	6.4
	전체	10.1	9.9	10.3	10.9	11.5	10.5	9.6	10.2	9.3	9.7	10.2	11.5	9.3
EBITDA/금융비용(배)	SI	8.2	5.3	4.9	7.5	11.6	9.5	8.7	7.5	5.6	7.0	7.6	11.6	4.9
	전체	2.3	2.5	3.5	4.4	5.4	5.7	5.4	5.6	4.8	4.7	4.4	5.7	2.3
영업이익/금융비용(배)	SI	5.3	2.1	0.9	3.2	6.7	5.4	5.3	4.3	3.2	4.9	4.1	6.7	0.9
	전체	1.3	1.3	2.0	2.6	3.5	3.5	3.1	3.3	2.9	2.8	2.6	3.5	1.3
감가상각/CAPEX(%)	SI	40.1	52.4	65.1	74.1	65.6	76.1	66.2	62.3	71.4	78.6	65.2	78.6	40.1
	전체	67.9	89.6	93.2	83.4	68.5	64.1	58.9	58.3	56.9	67.7	70.8	93.2	56.9
영업 CF/총차입금(%)	SI	28.0	20.1	24.7	40.6	58.7	47.8	49.7	33.8	30.7	32.7	36.7	58.7	20.1
	전체	15.8	17.5	22.0	20.5	26.3	21.5	17.6	17.2	12.9	17.5	18.9	26.3	12.9
잉여 CF/총차입금(%)	SI	-38.8	-	-19.3	-5.1	16.3	18.5	13.9	1.5	10.4	15.6	-1.7	18.5	-38.8
	전체	0.0	4.1	8.8	5.7	7.0	0.4	-5.0	-4.1	-5.7	1.6	1.3	8.8	-5.7
손익 CF/총차입금(%)	SI	65.1	45.0	37.9	61.2	64.2	47.1	56.4	43.2	31.3	34.6	48.6	65.1	31.3
	전체	16.6	18.2	24.1	26.0	30.9	28.3	25.8	24.0	20.3	20.2	23.4	30.9	16.6
유동성계수(배)	SI	5.5	4.0	3.5	3.5	3.4	3.0	3.3	2.4	2.0	1.9	3.2	5.5	1.9
	전체	0.8	1.1	1.2	1.2	1.4	1.4	1.3	1.2	0.9	1.0	1.1	1.4	0.8

주 1: 전체는 금융기관과 공기업만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합산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출된 값임.

주 2: 유동성계수 = {(현금성자산+단기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1+영업활동현금흐름}÷(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1

III. 산업의 최근 현황, 주요 이슈(Issue) 및 전망

1. 최근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최근 현황, 동향

2010년 IT서비스 시장은 연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기록

2010년 SI 시장은 연초 예상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2009년의 부진한 흐름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부문⁵에 속한 기업 중 SI사업을 영위하며 2010년 9월 분기실적을 발표한 상위 15개 기업⁶의 매출을 합산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23.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 확정치도 전년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2010년 SI시장규모는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폭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며, 2008년과 대비해서도 소폭 성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에 의한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업황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연기되거나 축소되었던 IT투자가 경기회복 신호가 감지된 2010년부터 활발히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IT 제조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며 공공 및 금융부문보다는 제조기업들의 IT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그룹 내 대형 SI기업의 경우 2010년부터 계열사를 중심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했으며, 해외 시장에서 예년에 비해 비교적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하위 업체간 양극화 추세 지속

국내 SI 관련기업은 총 5,000여 개에 달하나, 매출의 대부분이 그룹계열 소속 대형 SI기업군에서 발생하며(2009년 실적기준 상위 22개사의 합산매출이 전체시장매출의 약 54.3% 차지), 그 중에서도 상위 3사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이다.

시장 내 SI업체 수는 수천여 개에 달하지만, 실제 시장 내 매출의 대부분은 대내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룹계열 대형 SI업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2009년 시장규모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통계치인 22조 1천억 원 내외로 가정할 때, 상위 22개사의 매출규모 합계가 약 10조 4천억 원 가량으로 전체시장 내 점유율이 약 4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상위권 업체 중에서도 대내시장물량의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축경험 및 풍부한 기술인력 보유측면에서도 차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위 Big 3의 비중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상위 22개사 최근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실적기준으로 상위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규모가 상위 22개사 총 매출액과 총 영업이익의 54%와 70% 가량을 각각 차지하였다. 결국 소속된 그룹의 우량도와 매출규모에 따라 SI기업의

⁵ 표준산업분류 산업코드 26번

⁶ 삼성SDS, LG CNS, SK C&C, 코오롱아이넷,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 정원엔시스템, 현대정보기술, 대림 I&S,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동부C&I, 동양시스템즈, 다우기술

실적이 좌우되는 현상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SI시장 내 양극화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국내총생산	SI 산업(A)	주요 22 사(B)	상위 3 사(C)	B/A(%)	C/B(%)
2003 년	7,671,137	127,877	68,530	38,716	53.6	56.5
2004 년	8,268,927	137,108	72,370	41,713	52.8	57.6
2005 년	8,652,409	160,033	75,654	44,622	47.3	59.0
2006 년	9,087,438	178,468	83,504	50,552	46.8	60.5
2007 년	9,750,130	188,039	87,735	50,638	46.7	57.7
2008 년	10,264,518	227,645	98,104	57,962	43.1	59.1
2009 년	10,630,591	221,352	103,999	56,453	47.0	54.3

주: A, B, C의 수치는 매출액 기준, SI산업 수치는 KAIT(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통계치 기준이며(컴퓨터관련 서비스), 2007년까지는 확정치이나 2008년 수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표한 잠정치임(2010년 5월 확정 예정), 주요 22사는 2008년 매출실적 기준 상위 22개사(삼성SDS, LG CNS, SK C&C, 오토에버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현대정보기술, 한전KDN,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 한화SNC, 동부CNI, CJ시스템즈, 아시아나HDT, 대림I&S, 한진정보통신, 동양시스템즈, 세아정보통신, NDS, 대상정보기술, 한솔텔레콤 등. 코오롱아이넷(구 코오롱정보통신) 등 SI사업 이외 다른 사업(유통, 제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께 영위하는 업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통계청, 정보통신산업월보 및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 각 사 공시자료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 확산 추세

과거 대부분의 SI업체들은 출혈경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레퍼런스(Reference) 구축 및 경험 축적을 위하여 저가입찰에 응했으나, 이러한 출혈경쟁의 폐해로 인한 장기적 산업기반 약화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가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상위업체들을 필두로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외시장 내 수주전략 변화에 힘입어 최근 선두업체들을 중심으로 대외시장 내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M&A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2010년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SI기업들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삼성SDS는 그룹 내 NI 전문기업인 삼성네트워크를 1월에 합병한 이후, 티맥스소프트의 자회사인 티맥스코어를 인수하는 등 매출규모 측면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포스데이타는 그룹 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인 포스콘을 합병한 이후 사명을 포스코ICT로 바꾸며 매출외형과 사업기반이 확대되었다. 세계적인 철강업체인 POSCO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ICT의 입지를 고려할 때 향후 국내 IT서비스 시장에서 4위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평가된다. STX산하의 SI기업인 포스텍 역시 그룹 내 물류/해운 아웃소싱 기업인 포스아이를 합병하며 그룹 내 아웃소싱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하였다. 한편 동양시스템즈는 SC제일은행의 금융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던 KTFDS를 합병하며 금융 사업부문을 강화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롯데정보통신이 비 그룹계열 SI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춘 현대정보기술인수를 발표하며 단숨에 매출액 기준 국내 5위의 기업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SI 산업 내 주요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다음 3가지 정도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IT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Convergence 사업을 펼치며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

하려는 점, 둘째, 중견 SI기업들이 단기간에 외형과 Reference를 보강시켜 시장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점, 셋째, 향후 주요 Market trend인 모바일 오피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Infra를 선구축하려는 점 등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계기로 대형기업 중심의 SI시장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시장자체가 성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 소속 SI 기업들은 그룹계열 물량의 수혜를 받기도 하나 그룹계열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불리한 환경변화 또는 비우호적 환경하에서의 자체대응력 및 자생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위험요인을 축소하고 미래성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근 들어 상위업체들을 선두로 해외 진출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SDS · LG CNS · SK C&C 등 상위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 동남아 등에 이미 해외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특히 삼성SDS의 경우 2010년 해외매출 비중이 25%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 CNS와 SK C&C의 경우도 2010년 해외 매출 비중이 10%는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상위 3사의 주요 해외사업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삼성SDS는 올해 4월 해외프로젝트 중 최대규모인 5천억 원 수준의 쿠웨이트 유정시설 보안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LG CNS는 선진시장인 일본에서 사가현 지역 클라우드 시스템 프로젝트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SK C&C 역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ITS 구축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포스코ICT는 남미지역 지하철 자동화 시스템등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판단되나 프로세스 표준화 및 국내 사업대비 낮은 운영효율성 등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평가된다.

(나) 주요 이슈

2011 IT 예상 이슈: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프라, 모바일 보안

2010년에는 스마트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모바일 플랫폼과 가상화 등이 주요 기술적인 IT 이슈로 등장한 한편, Data Privacy 및 저작권 보호 등이 사회적인 IT이슈로 거론되었다. 2011년에는 2010년의 경향이 보다 본격화 되고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2011년 국내 IT 주요 이슈로서 ‘(모바일)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프라’, ‘모바일 보안’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시작된 모바일이란 이슈가 2011년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여기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간 convergence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바일)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경우 현재 SI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기기는 무한한 접근성에 비해 개별기기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형태가 점점 다운로드 중심에서 스트리밍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희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순간적으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높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연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현재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자 기반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나 유료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현재 소셜 커머스 및 게임 등으로 사업모델이 한정적이나 향후 기업에서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의 경우 무선 Data Traffic의 급격한 증가로 4G서비스의 도입이 앞당겨 지고 다양한 분산기술이 개발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선 인터넷망의 개방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MVNO, Facetime)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이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보안’ 분야의 경우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보안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산업 전망

2011년에는 대부분의 국내 주요기관들이 2010년 보다 소폭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SI시장도 2010년 보다 소폭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9년에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던 IT투자가 2010년에 동시에 집행되며 2010년 성장세가 예년대비 높은 수준을 시현한 반면,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세계경제 전망’ 이 다시 불투명해지며 주요 기업들의 2011년 IT투자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부문은 2011년 정보화사업 신규 발주 및 구매 총 예산으로 2조 6,801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9.5%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HW 및 패키지SW 구매는 2009~2010년 사이에 예산이 조기집행되며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으나 시스템구축 및 SW개발 계획 예산이 전년대비 26.4% 증가한 2조 1,738억 원으로 증액되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⁷

각 업종별로는 공공SOC 부문과 제조기업 SI 성장은 소폭 정체될 것으로 판단되나 모바일 솔루션 및 보안부문 시장 성장으로 서비스기업 SI시장은 전체 성장률을 뛰

⁷ 2011년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조사, 지식경제부

어느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SI시장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가운데 SI 물량 보다는 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2011년 SI시장은 2010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은 실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기민감도가 높은 SI산업 특성상, 2011년 이후 장기 성장 전망은 다소 가변적이다.⁸

이러한 SI시장의 성장전망과는 별도로 그룹물량 보유 여부에 따른 상·하위 SI기업들 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퍼런스 구축 및 기술력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글로벌 기업조차 관계특혜에 기초한 그룹계열 SI업체중심의 산업특성으로 국내 '기업IT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정서상, 중소 SI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낮은 대외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대규모 그룹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유한 소수 상위SI기업에게 유리한 경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중소SI기업들이 직면하는 높은 산업위험 수준은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IV. 신용등급 분포 및 추이

[표 2] 소속기업 신용등급 분포 및 추이

기업명	등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삼성에스디에스(주) (이하 '삼성SDS')	장기	-	AA-	-	-	-	-
	평정일	-	'06.06.29	-	-	-	-
	단기	-	A1	A1	A1	A1	A1
	평정일	-	'06.06.29	'07.06.29	'08.06.27	'09.06.30	'10.06.29
(주)엘지씨엔에스 (이하 'LG CNS')	장기	A	A+	-	-	AA-	AA-
	평정일	'05.06.27	'06.07.31	-	-	'09.08.21	'10.06.25
	단기	A2+	-	-	A1	A1	A1
	평정일	'05.06.27	-	-	'08.06.30	'09.06.30	'10.06.25
에스케이씨앤씨(주) (이하 'SK C&C')	장기	A	A+	A+	A+	AA-	AA
	평정일	'05.03.08	'06.05.04	'07.10.10	'08.05.21	'09.06.09	'10.02.11
	단기	A2	A2+	A1	A1	A1	A1
	평정일	'05.03.08	'06.05.04	'07.06.19	'08.05.21	'09.06.30	'10.06.18
포스코ICT(주)	장기	-	-	A+	A+	A+	AA-
	평정일	-	-	'07.11.13	'08.05.30	'09.06.30	'10.12.31
	단기	-	-	A2+	-	-	A1
	평정일	-	-	'07.11.13	-	-	'10.05.17

⁸ 삼성SDS 2011년 ICT 서비스 시장전망, 2010.12.09

기업명	등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포스텍	장기	-	-	-	-	BBB+	BBB+
	평정일	-	-	-	-	'09.11.18	'10.06.29
	단기			-	-	-	A3+
	평정일			-	-	-	'10.11.19
한화에스앤씨(주) (이하 '한화 S&C')	장기	-	-	-	-	A-	A
	평정일	-	-	-	-	'09.06.09	'10.06.29
	단기	-	-	-	-	A2-	A2
	평정일	-	-	-	-	'09.06.30	'10.06.29

주1: 당사 평가등급 추이만 표기하였으며, 장기등급 등급전망이 Stable인 경우 표기 생략하였음.

SI기업의 전반적인 등급분포 및 추이를 살펴보면, 대규모 그룹계열 SI기업의 신용등급은 양호하며 점차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그룹계열기반이 없거나 있어도 비중이 미미한 SI기업의 신용도는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신용평가 시장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그룹 내 대내시장에 크게 의존적인 경우 그룹 신인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소속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실적추이와 재무상태 여하가 해당 그룹계열 SI기업의 신용등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룹계열기반이 미미하여 그룹 외 대외시장이 주요 목표시장인 SI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 또는 높지 않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기반 없이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 있는 대외시장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부진한 수익성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당사 유효등급을 보유한 각 SI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SDS는 국내 최고의 그룹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수익기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창출력 측면에서도 국내1위의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무위험 수준도 업계 최고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LG CNS는 그룹기반이 삼성SDS 대비 열위한 수준이나 대외시장에서의 수익창출력은 업계 최고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시장 비중이 과거에는 그룹매출비중이 높은 삼성SDS, SK C&C 대비 저조한 수익성을 초래하였으나, 수익성 위주의 수주정책으로 전환 이후 최근 몇 년간 수익성 및 제반 실적이 크게 향상된 상황이다.

SK C&C는 매출액 기준 국내 3위 SI기업이나 최근 상위 경쟁사와의 매출 및 이익 창출규모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업계 최상위권 그룹매출기반을 보유한 가운데 SK그룹의 지배구조상 중요한 입지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 사업 및 재무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코ICT(구 포스테이타)의 경우 자산규모/수익창출력/현금창출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무지표 측면에서 상위 3사 대비 상당히 열위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내 최상위권 기업으로 평가되는 포스코를 모회사이자 안정적 수익기반으로 보유함과 동시에 최근 동 계열 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스콘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사업안정성 및 재무적 융통성이 공히 제고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비재무적(정성적)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화S&C와 포스텍은 2009년 처음 신용평가지장에 참여한 업체로서 각각 한화그룹 계열과 STX그룹 계열의 SI 및 IT아웃소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룹의 성장과 함께 매출액 규모 및 수익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며, 2009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10위권 내외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